

도와줘,  
화장실 친구들!



이게 무슨 소리지?

아하, 차이 배에서 나는 소리구나.

차이가 배 아픈가 봐요.

**아이 배 아파. 응가를 해야겠어!**



차이가 변기에 앉아 응가를 해요.

**끄으응 끄으응**  
**응가야 나와라! 끄으응**



**뿌지직 뿌지직  
뿌우응 뽕!**



**아 시원하다.  
이제 배가 하나도 아프지 않아!**

차이가 응가를 다 했어요.  
 이제 엉덩이를 닦아야 해요.  
 차이가 엄마를 부르려고 할 때였어요.

어? 무슨 소리지?  
 누가 차이를 부르고 있네요?



휴지가 차이에게 말을 걸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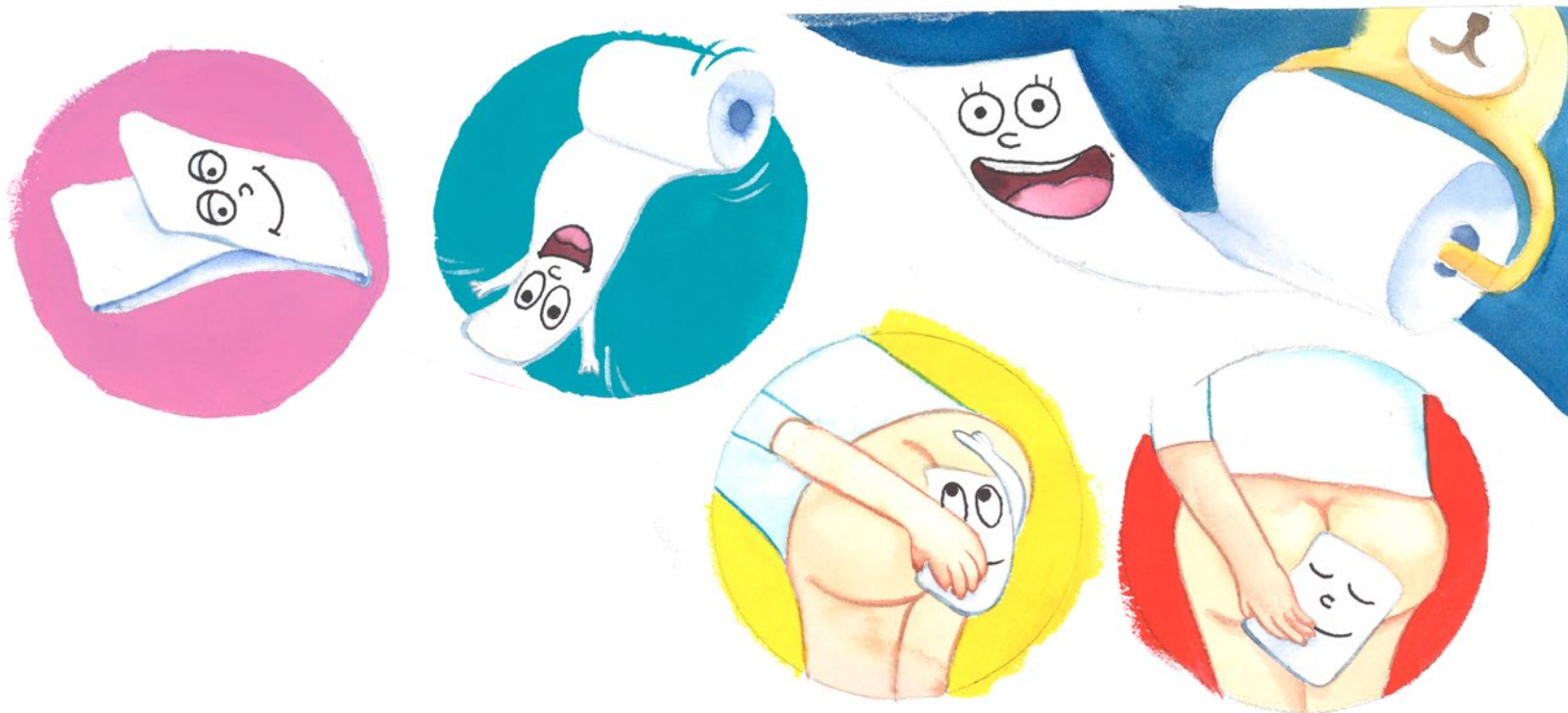
**차이야 잠깐! 오늘도 엄마에게  
뒹아 달라고 부탁하는 거야?”**

**응 난 혼자 뒹는 걸 모르거든.**

**오늘부터 혼자 해보자.  
우리가 도와줄게.**



먼저 날 세 번만 접어봐.  
그리고 손으로 잡고,  
손을 엉덩이에 가져가 봐.



그 다음엔, 엉덩이를  
쭉 내밀고, 엉덩이에 묻은 똥을  
나를 가지고 위로 닦아봐.

한 번 닦고 나면 휴지를  
반으로 접어야 해.  
그리고 엉덩이를 한번 더 닦는 거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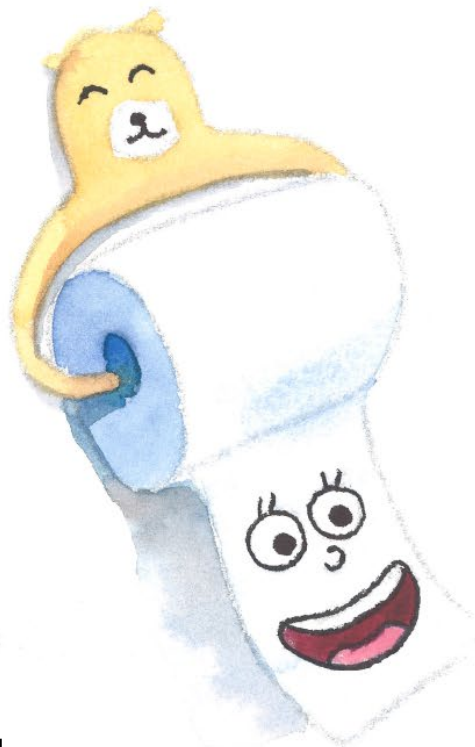
이렇게 두 번 닦고 나면  
나를 휴지통에 버려줘!





이제 나를 다시 세 번 접어봐.  
그리고 엉덩이를 또 닦아봐!

두세 번 하다 보면 엉덩이에  
더 이상 똥이 없을 거야.  
잘 하고 있니?



응! 세 번 접고 엉덩이를 닦았어.  
깨끗한 느낌인 걸?

맞아. 이제 나를 휴지통에 버리고  
바지를 입으면 돼.



엉덩이를 다 닦은 차이는 휴지를 휴지통에 버리고  
바지를 입었어요.

그 때 옆에 있던 변기가 이야기 했어요.

다 닦은 뒤에는  
나의 물을 내려줘.



‘짜아아아~’ 차이는 힘차게  
물을 내렸어요.

**똥아 안녕~ 잘가~**

옆에 있던 세면대와 비누가 이야기 했어요.

차이야 이제 손을 깨끗하게  
씻어야 해. 손 씻는 법을 알고 있니?

그럼! 물을 틀고, 비누로  
뽀득뽀득 문질러 씻는 거야!

맞아. 나를 문질러서  
거품을 내고 손을  
깨끗하게 씻어봐~



손을 다 씻은 차이에게 수건이 이야기했어요.

손이 아주 깨끗해졌네?  
차이야, 이제 나에게 물을  
뉘아봐.  
어때, 손이 뽕뽕해졌지?

응! 우와 내 손이 반짝반짝해!



우와! 화장실 친구들아  
정말 고마워. 내가 혼자서  
똥을 닦았어!

축하해 차이야!

대단해!

화장실 친구들이  
모두 함께 축하했어요.



어머 차이야, 혼자서 응가하고  
뉘기도 다 한 거니?

엄마가 화장실로 들어와서  
차이에게 물었어요.

응! 내가 응가도 하고,  
엉덩이도 뉘고 손도 씻었어요!



어머! 차이 정말 대단해!  
이제 혼자서 다 해내는  
척척박사가 다 됐네?

엄마는 차이를 꼭 안으며  
칭찬해 주셨어요.





‘고마워 화장실 친구들!  
너희 덕분이야.’



차이는 화장실 친구들에게  
윙크했어요. 이제 차이는  
혼자 응가를 닦을 수 있어요!